

누가 6·25를 ‘歷史’라고 하는가

누가 6·25를 역사라 하는가? 누가 6·25가 60년 전 끝난 전쟁이라 하는가? 6·25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

전쟁은 상대가 항복해야 끝난다. 북한은 휴전 이후 60년간 하루도 전쟁을 쉬지 않았다. 아직도 남반부를 해방한다고 120만 군대를 앞세워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가 우세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있어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무력해방 의지를 버리고 우리와의 공존을 수락할 때라야 6·25는 끝난다. 6·25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대남 정치전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 “DMZ가 아닌 서울이 주전장”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정치에 개입하여 ‘친북정권’ 창출이라는 또 하나의 6·25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남한 내에 구축해놓은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친북 단체에 정치자금을 공급하고 대남 정책을 조정해가면(북풍) 서울에 북한에 호의적인 정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고 북한은 한국의 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 정치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금년 선거에서는 좀 더 강하게 친북 정권 창출운동을 펴고 있다. 과거 지하에 잠복시켜 놓았던 지하당 조직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합법투쟁’을 펴기 시작했다. 통혁당과 민혁당은 지하당이였다. 이제 민혁당을 바탕으로 ‘진보당’이라는 합법 정당을 만들어 의회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기존의 민주당을 숙주(宿主)로 하여 비례대표 자리를

얻어 국회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 정치전은 6·25전의 일부인 비군사적 전투이다. 북한은 군사전과 비군사적인 정치전을 배합하여 남한 해방을 완수하여 ‘강성대국’을 금년 내에 만들어 낸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을 독려하고 있



이상우

·분회 회우
·전 조선일보기자
·전 한림대총장
·현 신아시아 연구소장

투쟁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에 호의적인 한국 국민을 앞세워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쓰지 못하게 묶고 군사방위체제 구축을 방해하여 북한의 대남공세를 막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상당 수준 성공하고 있다.

간의 대결, 60년 계속되어온 6·25전쟁도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북한이 체제붕괴의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재기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고 국제적 협력을 얻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오직 한국을 점령하여야만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25전쟁이 종착역에 임박하고 있다.

6·25전쟁을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끝내는 길은 있다. 우리가 결심하면 6·25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다. 북한의 무력공격 능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억제전력을 갖추고 북한이 도전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길이다. 힘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동독의 항복을 유도해낸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과 대동독 정책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상국가’로 변신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흔쾌히 도울 것이다. 그 때가 되면 6·25전쟁은 끝나고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6·25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6·25를 목격하고 그 전쟁에서 고통 받았던 세대는 이제 몇 남지 않았다. 6·25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새 세대에게 6·25를 바로 끝내는 법을 일러주는 일이다. ‘6·25를 평화롭게 끝내는 방법은 북한이 헛된 꿈에서 깨도록 힘의 우위를 갖추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평화는 선한 자가 강할 때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 진리이다. [K]

북한 ‘친북정권 창출’ 대남 전략 구사 무력 포기 않는 한 전쟁 끝나지 않아

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이제 신흥 준강대국이 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경제파탄에 이른 시대착오적 개인 지배의 신정국가(神政國家)로 전락하였다. 모든 국력 지표에서 북한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 규모는 한국이 북한의 40배에 이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반부해방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의 약점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이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의 약점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조차 부인하는 반국가 단체도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치

정부와 국민의 오만도 문제다.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대남공세에 우리 사회를 무방비 상태에 내버려두고 있다. 국민복지예산으로 90조원 이상을 배정하는 우리 국회가 국방예산 32조도 많다고 깎으려 애쓰는 실정이다. 방위비 삭감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야당의 정부 헐뜯기와 여당의 무책임이 손을 잡고 한국을 무방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기막힌 푸대접 속에서도 우리 국군은 최선을 다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해나가고 있다. 이런 기막힌 상태가 북한이 강성대국의 꿈을 못 버리게 만들어주고 있다. 분단 이래 지속되어온 남북한

중북좌파 국회진입 특단대책 촉구 본회 6·25참전 언론인회 임원회의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는 지난 5월 7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몇 가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국방부와 보훈처 등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기병 회장 김관태 한영섭 감사, 지용우 간사, 이

순기 황대연 회우 등이 참석한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특히 6·25 62주년을 앞두고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난 중북좌파세력의 행태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6·25 참전언론인

임원회의는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전적지 탐방, 대토론회, ‘내가 겪은 6·25 한국전쟁’ (가제) 출판, 안보 캠페인(중고생 상대 순회강연)등을 결의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6·25 남침전쟁 62년이 지난 오늘에도 북한은 잇단 핵실험 위협과 생화학무

기. 또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열악한 예우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계속 탄원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6·25 南侵 부정' 더이상 용납안돼

6·25 한국전쟁은 세계 전사(戰史)에도 그 님은 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복잡한 전쟁이다. 단지 전쟁의 주체가 남·북한이라는 사실로 '내전'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원인과 배후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단순논리일 뿐이다.

6·25전쟁에는 미군과 중공군, 소련 공군 등 강대국이 참전했고, 그밖에도 15개국이 유엔의 깃발아래 싸웠으니 엄연한 '국제전'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내전으로 시작된 국제전'이다. '남조선 해방전쟁'이란 미명 아래 구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받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으로 기술한 소련의 비밀문서가 '기밀해지'된 이후 전쟁의 내막과 성격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

남침유도설 근거없어

따라서 브루스 커밍스 등 수정주의 학파들이 주장한 '전쟁 음모론'이나 '남침유도설' 따위는 이제 전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정주의 학파들의 주장 가운데 아직도 설득력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전쟁과 연결고리선상에 있는 '미국의 책임론'일 것이다.

전쟁발발 전 해인 1949년에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주한 미군을 군사고문단만 남겨놓고 완전 철수시킴으로써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트루만 행정부의 실책과, 특히 "한반도는 미국의 태평양지역 방어선 밖에 있다"고 선을 그은 소위 '애치슨 라인'의 공표

(1949.1.12.) 등이 김일성과 스탈린으로 하여금 남침을 단행하는 데 동기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애치슨라인은 실제로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해서 무기지원을 받아 내는데 긴요한 협상카드로 써먹었다는 사실이 뒤에 밝혀졌다.

1970년에 발간된 흐루시초프 회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인정한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구체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볼 때 6·25는 김일성 기획, 스탈린 승인, 마오쩌둥 후원의 합작 전쟁이라는 결론에 귀착된다. 중국이 1996년 7월에 각급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을 '남한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3%가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종북좌파만 사실 외면

6·25는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야포 등 무기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임을 전쟁의 공범자인 러시아도,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 판인데 이 엄연한 사실(史實)을 외면하고 아직도 북한이 개전 초기에 날조한 북침설을 믿는 '반역적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는 우글거리고 있으니 문제다.

이들은 천안함의 폭침을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맹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는 종북좌익세력이며, 일부 운동권 학생들, 특히 전교조 선생들에 의해 굴절된 역사를 교육받은 철부지 중·고생들이다.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일어나서 삼천리강산을 피로 물들여야 했던가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불행이다. 호전주의적인 북한은 '핵무기'는 보유했으나 '배고픈 강성대국' (?)이다. 앞으로 또 어떤 군사모험을 감행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6·25 6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또 다른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아래 국가안보를 철통같이 다지는 동시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내부의 적(敵)'도 철저히 경계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문]

蘇기밀문서 공개로 진실 드러나 종북좌파 엉뚱한 논리 차단해야

고록은 1949년 말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이 전쟁이 개시되면 단숨에 서울을 침공하고, 남한 내(동조세력) 폭발을 촉진시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스탈린을 설득했다고 적고 있다.

중국교과서도 수정

게다가 6·25전쟁 발발 불과 6일전인 1950년 6월 19일의 미 CIA보고서에는 "북한은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소련의 통제된 위성국이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후에 펜타곤도 '정보실패'로

로 수정한 사실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젊은 세대는 무관심

그런데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6·25 한국전쟁의 내막에 대해 대체로 무지에 가까우며 관심조차 없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행안부 실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36.3%와 청년의 58.7%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5 전쟁을 어느 쪽이 먼저 일으켰는지도 알지 못하는 국민이 성인의 20.4%, 청소년의 36.3%로 나타났다. 한편 6·25 전쟁을 어떻게

6·25 격전지 순방-중요기록 정리 출판키로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6·25 참전언론인회는 이날 최근 통합진보당당 사태에서 드러난 불법 부정행위와 종북좌파세력의 국회진출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6·25 참전 언론인회는 또 오는 6월 철의 삼각지대인 철원 일대를 비롯 6·25 격전지를 순방하고 연내에 6·25 참전 언론인들의 전쟁비화 내지는 중요 기록들을 취합 정리해 출판함으로써 후진들에게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이와 관련 몇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차로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30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면담했다. [본문]



박기병회장(왼쪽)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면담했다.



6·25참전 언론인회 임원회의.

부모님 앓아간 6·25 어떻게 잊을까

북한군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 왔다.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전쟁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야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날의 악몽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룻밤새 중공군 천지로

내 고향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북지리. 아버지는 8·15 광복 후 35세 때부터 고향에서 오랫동안 면장을 지내셨고 나는 이곳에서 2대 독자로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런데 6·25 공산군 남침이 우리 집안을 산산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내가 서울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일 때였다.

서울이 공산군에게 점령 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아버지는 마을 앞산으로 피신하셨다가 9·28 수복 후에야 돌아오셨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했고 급기야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으로 진격했다. 이제는 그야말로 ‘북진통일’이 되는가 했다. 이런 꿈은 중공군이 뛰어들며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 소위 ‘인해전술’로 물밀듯이 몰려 왔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공산군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우리 가족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1·4 후퇴 때 피난길에 나서면서 부터였다.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고모님과 우리 4남매, 또 우리 집에 피난 와 계시던 진외가 식구 등 모두 13명이였다. 우리는 경찰관으로부터 “동두천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을 떠난 뒤 장흥과 안양, 그리고 수원을 지나 4일 만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대지마을’에 이르렀다. 피난길은 발목까지 눈이 쌓였고 강추위로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마차와 소를 끌고 한강을 건넌 길거리는 온통 피난민들과 후퇴하는 미군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대지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이상하리 만큼 밖이 조용했다. 밤새도록 천지를 뒤흔들던 포성도 멈추고 큰 길을 막 메웠던 미군 차량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더니 동이 트자 남쪽으로

내려가던 피난민 행렬이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다. “웬 일이나”고 했더니 밤사이에 중공군이 ‘오산’까지 밀고 왔다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중공군에 포위된 것이다. 아버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는 것 같았다. 중공군은 어둠이 들 무렵 마을로 들어 닥쳤다. 흰 두루마기를



홍원기

·본회 회장
·한국일보 감사
·CBS 노컷뉴스 감사

이런 상황은 며칠간 지속됐다. 이곳에서 피난민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아버님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죽든 살든 남쪽으로 가자” 시며 피난 봇짐을 지고 나 서셨다. 마을 어귀를 지나 ‘풍덕천리’ 4거리에

은 모두 팔다리에 파편을 맞아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다.

소년가장으로 상경해 고학

우리는 졸지에 전쟁고아가 됐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누구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너도 나도 총탄을 피해 살려고 뛰는 마당이니 정말 겨울 강추위 이상으로 세상이 냉혹했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연세는 40세이셨고 살아난 누나는 15살, 나는 14살이었으며 두 여동생은 9살과 7살이었다. 누나는 발에 맞은 총상 후유증으로 얼마 뒤 사망했다. 결국 나는 두 여동생을 거느린 ‘소년가장’으로 세파를 이겨내야 했다. 나는 양담배를 목판에 담아 목에 걸고 “담배사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향을 찾아 발길을 옮겼다.

내가 서울로 상경한 것은 1954년 봄이었다. 17살 때다. 피난길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다가 서울서 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두 여동생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단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모르는 무모함이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어쨌든 나는 덕수중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한 다음 우선 학비를 마련하려고 미아리에 있던 ‘스탬프·공장’으로 취직을 했다.

이 공장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빈 ‘깡통’을 망치로 편 다음 ‘스탬프’를 찍어내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망치질과 ‘프레스’를 돌리며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국일보 창간과 동시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후 일관되게 ‘신문인생’ 60년을 이어왔다..

6·25전쟁은 끔찍했다.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 사상자는 물론 민간인 사상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었고 1천만 이산가족이 여태껏 고통을 겪고 있다. 이밖에 엄청난 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남북 양쪽 민가와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교회와 사찰 등이 무수히 파괴 됐다. 그런데도 그때 그 참혹했던 실상은 우리 뇌리에서 까맣게 잊어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전쟁은 없어야 한다. [국문]

피난길 비행기 기총소사로 참극 졸지에 고아돼 모진 세파 시달려

뒤집어쓰고 있었고 마차를 끌고 있었다. 무기라고는 소총과 권총, 그리고 방망이 수류탄이 전부였다. 대포 등 중무기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군대에 왜 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은 중공군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릴 뿐 총소리 하나 없이 적막이 흘렀다. 이러더니 며칠이 지났을까. 아침나절 갑자기 남쪽에서 무스탕 비행기 편대가 날아 오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우리 비행기가 왔다”며 모두 집 밖으로 뛰어나와 비행기를 반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행기는 지붕 위를 날듯이 저공비행을 하며 사정없이 기관총을 쏘아 댔다.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떠나자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다. 온 마을은 불바다가 됐고 여기저기서 식구들을 찾느라 울부짖고 있었다. 처참하게 죽은 피난민 시체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중공군은 공습을 받자마자 산 속으로 숨어들어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날부터 이 마을은 미7사단과 중공군이 싸우는 전쟁터로 바뀌었다. 매일 비행기 폭격과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애꿎게 수많은 피난민들만 여기저기서 비참하게 죽어갔다.

있던 ‘양조장’ 앞에 이르자 피난민들이 몰려 있다가 너도 나도 따라 나섰 다. 일행은 20여명으로 늘어났다. 마침 얼어붙은 ‘풍덕천’을 건너려는데 남쪽 하늘에서 ‘세이버’ 전투기 편대가 날아 오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길 북판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피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모두 피난 봇짐을 머리 위에 얹었다. 그랬는데도 비행기 편대 4대 중 3대는 서울 쪽으로 날아 가고 한 대가 되돌아오더니 우리를 향해 거꾸로 쏘았다. 비행기 앞의 마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 기관총을 쏘는 것이 그렇게 보인 것이다.

“저것보라”고 소리치며 옆드리는 순간 비행기는 “따따따--” 기관총을 퍼붓고 다시 하늘로 치솟아 다른 비행기를 따라 서울 쪽으로 날아 갔다.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버지 등 우리 가족과 피난민들이 모두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는 총을 맞으신 후 벌떡 일어나서더니 힘없이 쓰러지셨고 여기저기서 “살려 달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일행 20여명 중 산 사람은 나와 누나, 그리고 두 여동생 뿐 이었다. 그나마 누나와 두 여동생



이혜복 고문

이혜복선생 언론외길 책 출판기로 대한언론인회 출판위원회 구성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올해 9순을 맞은 원로 언론인 이혜복(본회 고문)선생이 걸어온 참 언론의 길을 집대성한 책을 펴내기로 했다. 이혜복고문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KBS 등에서 사회부장, 해설주간 등을 거치면서 오직 언론의 정도를 걸어 왔다. 특히 6·25전쟁의 한 가운데 뛰어들었던 ‘종군기자 1기생’으로 당시 현장취

재기는 공산군의 남침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대한언론인회회장을 5대에 걸쳐 역임하면서 언론인복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방우영언론재단으로부터 소정의 출판비를 지원받아 금년 중에 이 책을 펴낼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출판위원회를 구성했다.

〈출판위원회〉

발행인: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집행위원장: 정운중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맹대균

(대한언론인회 홍보출판위원장)

편집위원: 강승훈 권도홍 박기병

송효빈 윤익한 윤기병 이병대

(가나다순)

6·25당시 이승만 역할 재평가 필요

꼭 6·25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1950년대를 산 사람들은 이 참혹한 전쟁이 북한에 의한 침략전쟁이라는 것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 만했다. 내가 다닌 중등학교(경남 진주)는 휴전(1953년 7월)된지 여러 해 뒤에야 전쟁에 허물어진 옛 건물을 헐고 새 교사가 세워졌고 학교 운동장에는 직경 20~30m 되는 폭탄웅덩이 2~3개가 더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 엄청나게 큰 폭탄이 떨어진 자국이였다. 전쟁 규모가 당시 우리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1백50년을 지나면서 매년 연구서적과 전쟁 리허설을 하고 있고, 일본은 원자탄 맞은 중심부를 전원으로 보존하고 있는 데 우리는 그런 교육도 없고 흔적도 보존하고 있지 않다.

6·25전쟁은 2차 대전 승리 후 공산주의팽창정책을 그대로 밀고 간 소련-중국-북한의 침략전략과, 원자탄을 독점하고 있고 국제연합이 새로 만들어져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잘못된 계산한 미국의 방심이 어우러진 가운데 일어났다. 북한은 T34탱크와 야크전투기 중화포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고 중공(중국)으로부터는 전쟁경험이 많은 한인 8로군부대(인민군 5사단, 6사단)를 넘겨받아 남침준비를 했다. 남한은 미군주둔군이 모든 중화기를 철수해 갖고 한국군은 아직 소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허허벌판이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5천년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가는 걸음마단계에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북

한의 강력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 계산으로는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이승만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라는 반쪽짜리 신생국이었지만 대통령은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첫째 그는 세계 공



정일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둘째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하려 달려올 때 신생국대통령으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원국과 지원군을 잘 처우 하고 통제하여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그는 유엔군이 조직되었을 때 “한 전장(戰場)에 두 사령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 원칙에 따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맥아더)에게

인사를 강제로 공산주의로 넘기는 일을 저지하는 등 전쟁수행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해냈다. 유엔의 휴전결정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꿈은 일단 실현되지 못했지만 반공포로석방 등의 비상한 노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틀을 만들었다. 이승만이 건국과 신생공화국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낸 과정에서 보인 노력은 세계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헌이다.

6·25남침 62주년, 휴전 59주년을 맞는 한반도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독재라는 체제차이로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경제발전에서 남북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민의 희생 위에 원자탄을 만들고 고성능 전자방해장치를 개발하면서 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6·25때 북한은 무력으로 밀고내려가지만 하면 곳곳에 북한체제를 환영하고 김일성만세를 부르는 민중봉기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다. 미군이 물러가고 국가보안법이 폐기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믿을 만한 현상들이 최근들어 더 악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파괴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세대의 시급한 소명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아는 것과 다른 맥아더의 한국전쟁’의 저자) [\[필자\]](#)

당당한 자세로 세계지원 이끌어 자유민주체제 지키는데 큰 공헌

산독재세력이 이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부를 말살하려 소련 T34탱크가 앞장서 침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민국이 죽으면 다른 아시아가 위험하고 미국도 결국에는 위험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유엔은 6월 25일 바로 그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침략군을 38선 이북으로 물러가라고 결의했다. 6월 27일 재차 유엔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했으며 미국은 30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16개국이 한국에 군대를 보냈고 총 22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넘겨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전쟁기간동안 유엔군의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은 물론 장병들을 찾아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정부의 전쟁의지전달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맥아더는 이승만을 존경했으며 밴프리트 8군사령관을 비롯한 고급지휘관들이 이승만의 합리적전쟁수행과정에 동의했다. 밴프리트장군은 그를 아버지처럼 모셨다. 전쟁이 이승만의 뜻대로 다 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90%이상의 나라 원조를 받는 신생국 대통령으로서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을 제치고 국군으로 하여금 38선을 돌파케 하고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반공

18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11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대선이라는 하나의 문으로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에서 후보자 모두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7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 외에는 어떤 이슈도 한 뼘의 틈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권의 대선 열기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투표는 국민들이 정치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선택이다. 바로 이 ‘선택’이 국민의 관심이요, 문제다. 투표하고 나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후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하지 않는 투표행위가 없겠지만 18대 대통령은 다시 엄습한 세계 경제위기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 특히 3대 세습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선택할 것인가의 의미부여는 심각해진다.

국내의 상황도 심각하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전으로 인한 안보태세 확립이 시급한 가운데 분노의 정치, 혼돈의

18대 대통령의 자격

경제,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소통의 열린 마인드와 수직적 권위의 등산형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감성의 올레형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은 원한다. 양극화의 심화로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부의 70% 이상을 소유하는 경제불평 현상을 혁신할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들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을 원한다. 삼고초려 해서 인재를 발굴하지 않고 측근에서만 쉽게 뽑아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로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에 몸을 떨게 하고 실망시키며 자리가 빌 때마다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회전문 인사로 빙빙 돌리는 그런 영혼 없는 인사를 하지 않을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은 실습이나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한 순간의 주저도 없어야 하고, 개혁을 단행할 때는 추상같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머리를 조아리며 일회성 행사로 표를 구걸하면서도 당선만 되면 대중을 경멸하며 비웃었지만 이제는 대중의 정치의식도 개안을 해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나쁜 정치인을 배제할 줄은 안다. 지금은 고체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액체민주주의 시대다. 국민의 정치 감각도 전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선한 곳으로 물처럼 흐른다.

닉슨·포드·레이건·클린턴 등 4명의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데이비드 거젠(gergen)은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야망과 변화를 위한 치열한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조건으로 ‘매케인의 열정’과 ‘오바마의 냉정’을 꼽았다. 매케인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 포로로 7년을 견디고 귀국, 상원의원이 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부패한 미국의 현실에 분노한 행동하는 영웅이었다. 매케인은 베트남 포로로 잡혀있을 때 상원의원이었던 그의 부친이 베트남 정부와 마후외교 통로로 그를 빼내려 했으나 매케인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포로 기간을 다 채운 후 석방되어 귀국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가였다. 그가 귀국했을 때 미국 국민은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다. 오바마는 냉정한 희망전도사로 평가받고 있다. 나폴레옹은 “정치가의 심장은 가슴 아닌 머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라일리(riley) 버지니아대학 교수는 이상적인 대통령상으로 미국의

5면으로 이어집니다.

종북주의자 핵심 200여명 뛰고 있다

종북과 이석기, 이상규 그들과 함께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말을 선뜻 믿지 않는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3대 세습체제와 28살짜리 아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종북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의해 자기의 본 모습을 숨겨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통진당사태를 지켜보며 보통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권파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저토록 몰상식한 패권을 부리느냐며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종북주의라는 말은 우파들이 명칭한 것이 아니다. 그들과 민노당을 함께 했던 흥세화,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진중권 등이 민노당을 주도하고 결국 민노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주사파NL계를 종북세력이라고 부르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진중권은 그들을 ‘조선노동당 이종대’라 했고, 흥세화는 그들을 ‘3대세습체제를 추종하는 광신자’들이며 특히 지난 4·11 총선 전에 ‘NL계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통일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라 종북주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초 노회찬, 심상정이 자신들이 창당했던 민노당과 결별하며 ‘종북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한 것도 종북주의라는 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이들과 민혁당을 함께 했던 필자가 보기에 종북주의라는 표현은 ‘친북’이라는 개념보다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파하며 그의 개선을 위해 십 수년을 노력해 온 김영환을 오히려 친북이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북주의자의 규모

그렇다면 종북주의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필자는 약 200여명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따져보자. 필자가 학생운동 시절 고려대 주사파 조직에 속해 있던 87학번 동기들은 대략 50명 선으로 최소 5년 이상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한 학년이 이 정도 규모였으니 고려대 출신 주사파는 약 500명 정

도라고 볼 수 있겠고, 전국 대학규모를 적게 잡아 50개라 하면 약 25,000명 정도가 주사파 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했었다고 간략하게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숫자는 더욱 많다. 학회나 서클에 가입하여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에 가고 각종 대중투쟁에 참

특별기고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

하여 결국 종북세력을 이롭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종북주의자의 규모를 정리해 보자. 고대 출신 주사파 중 현재 종북주의자로서 일정한(?) 조직관계를 맺고 온 삶을 그에 낭비하고 있는 사람의 규모를 필자는 대체로 10명 내외로 본다. 50개 대학으로 치면 약 5백명

파들에게 부정이든 협잡이든 가장 많은 표를 몰아주어 그와 그들의 당내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통진당 사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왜 몸통이 전면에 나섰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직의 생리상 결정적 상황이 아니라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하급 조직원들로는 여타 정치세력과 복잡하게 동거하는 통합진보당을 주도할 수 없다고 본 것인가? 또는 이석기 위에 어떤 사령탑이 있는 것인가? 여기서 작년 8월 발생한 왕재산사건도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 같다.

북한의 경찰총국은 왕재산 조직에게 ‘한국 국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과 노회찬 조승수등 북한 비판 세력을 제압하라’고 지령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인터넷과 같은 손쉬운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한국 내 종북파들에게도 쉽게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종북파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한국을 타도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정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북한 3대세습체제를 지원하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몸통 혹은 몸통급의 전면등장이 한국 타도의 결정적 상황때문이라 아니라 혼란조성과 대북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전망

지금 통진당 종북파들에게 퇴로는 없다. 한국 국회에서 해야할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전선체인 통일진보당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라도 몸통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없다.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기에는 하지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면서 6월 국회개원을 기다릴 것이다. 13명의 통진당 국회의원 중 6명이 확고한 자파 그룹이니 나머지 범NL계와 범진보계 국회의원들 각각을 견인해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민혁당 재건파조직서 활동 추정 ‘국회진출’ 북한지령 수행 하는듯

여한 숫자까지 포함하면 매우 소극적으로 보아도 50여만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종북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만일 이들 모두가 여전히 종북주의자라면 그들의 여론전파능력과 조직능력을 볼 때 현재 우리 한국은 벌써 종말을 고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의 종북의 규모는 다시 살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와 함께 주사파운동을 했던 동료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명의 동료 중 북한인권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필자가 있고, 여전히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종북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친구들이 3명가량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3대 세습체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도 판단한다. 북한체제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자세는 벗어났다. 물론 대북정책에 관한한 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한국정치에서는 반 새누리당의 입장을 견지한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이들과까지 모두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종북주의자의 실체를 오히려 모호하게

정도가 되겠으나 실제로는 200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대 출신 주사파들보다 타 대학 출신들의 종북운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 특히 경기와 서울, 호남지역 등은 이석기 등이 주도하는 민혁당 재건과 그룹에서 재조직화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필자는 짐작한다. 다만 김영환의 민혁당이나 하영옥의 재건민혁당처럼 과거 북과 직접적으로 선을 갖고 활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추정한다.

그들은 왜 전면에 나서는가

최근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이석기는 종북주의자의 몸통임이 분명하다. 김영환의 민혁당 시절 그는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서열 4위 혹은 5위 정도였다. 따라서 김영환, 하영옥, 박모씨 등 세 명의 민혁당 중앙위원을 제외하면 그가 중심인물이 된다. 김영환과 박모씨는 민혁당을 해체하였고, 하영옥은 재건민혁당 사건이후 그 행적이 모호하기에 일단 이석기를 종북파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몸통인 이석기와 종북

4면에서 이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장점만을 찾아 이렇게 조합했다. 제럴드 포드의 타고난 품위/ 지미 카터의 자제심/ 로널드 레이건의 쾌활한 낙천성/ 조지 H W 부시의 외교적 직관력/ 빌 클린턴의 지적 호기심/ 조지 W 부시의 완고한 결의. 라일리 교수의 이상적인 대통령상을 보면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품위, 자제심, 낙천성, 외교적 직관력, 지적 호기심, 완고한 결의 등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꼭 첨부할 것이 있다. 청렴과 도덕성.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과 가족은 청렴과 도덕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

령 자신이 재임 중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통령의 형님과 아들들, 처가 사람들이 부패혐의로 구속됐다. 어느 대통령은 품위 없는 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말로 성공하고, 말로 망한 대통령도 있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사를 지낸 브래드 퍼드는 대통령의 자격을 동물에 비유해 재미있게 풀었다. 코끼리의 가죽/ 나귀의 체력/ 잡종강아지의 상냥함/ 불독의 인내심/ 물개의 건강/ 타조의 위/ 사자의 용기/ 까마귀의 유머. 처칠과 레이건은 유머로 야당의 거친 반대를 돌파했다. 야당원과 화장실에서 만나면 블랙유머로 은유하면서 설득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소통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모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정

치의 리더십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가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린다. 어쩌면 이조의 왕들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이조 500년은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었다. 한국은 국회라는 견제기구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넘치는 권력을 제어하지 못한다. 권력은 정당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권력은 죽일 정당성이 있더라도 안 죽이는 것이다. 그게 바로 권력이다. 고대 스파르타도 왕의 독재를 막기 위해 두 사람의 왕을 두었다. 서로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왕을 두 사람 둔 것이다.

한국의 정치도 수많은 질곡과 역사의 교훈 속에서 정치발전과 대통령선거의 진화를 가져왔다. 부정선거, 학생

민주혁명, 군사쿠데타, 체육관 선거,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민주역량을 키웠고 투표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도 깨달았다. 그래서 정당들은 대통령 후보 공천도 국민경선제로 고민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새로운 방향과 국민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발전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과제는 사이비 자아들의 역동적인 집합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두고 대세론과 대망론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잠룡들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들 중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들은 지역감정이나 선동, 정치공학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의 자격이나 정책을 보고 심사숙고 끝에 선택할 것 같다.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4]

‘1분 30초틀’에 갇힌 TV 뉴스

친구 모임이나 이런 저런 모임에 가면 TV 뉴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다.”

“헤드라인만 보면 더 볼 것 없다.”

“TV뉴스만 보서는 뭐가 뭘지 모르겠다.”

“뉴스도 아닌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댄다.” 등,

인터넷에도 대학교수라는 한 블로거는 “난 뉴스를 보지 않는다. 내가 뉴스를 보지 않는 이유 5가지”라는 글로 TV뉴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뉴스 볼 시간이 없다.” “둘째 뉴스에는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다.”

“셋째 뉴스 편집자들의 사고에 길들여진다.”

“넷째 자극적인 정보들로만 눈길이 간다.”

“다섯째 뉴스없이 못 사는 뉴스중독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

첫째 이유와 다섯째 이유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성향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이유인 “TV뉴스에는 단편적인 정보뿐이다”라는 지적은 TV뉴스비판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SNS 닳아가는 TV뉴스

KBS 9시뉴스를 비롯한 공중과 3사의 메인뉴스는 1분 30초짜리 리포트와 앵커가 처리하는 짧은 기사를 포함, 대략 30개 내외의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2, 3개의 관련 뉴스를 묶어서 집중보도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분30초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1분30초로는 미시적인 사실을 보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시청자가 사건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건의 배경, 맥락,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4·11총선에서 특정세력을 지지했던 소위 ‘콩국수’의 무책임한 언행과 선동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콩,국,

수’는 소설가 공지영, 조국 교수, 소설가 이외수 세사람을 지칭)

이들은 각각 40만, 30만, 140만의 팔로어를 거느린 막강한 트위터들이다.

이 중 한 사람인 공지영씨는 총선 당일 강남에서는 오전에 이미 투표율이 70%를 넘었다고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그 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

방 송 시 평



정창기

·본회 회원
·전 KBS보도본부 보도실장

사건 전체 파악 정보 제공못해 무책임한 언행·선동 반복 보도

했다지만 SNS의 특성상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을 것이다.

개를 에쿠스자동차에 끌고가서 물의를 일으켰던 ‘악마에쿠스’ 사건에서 보듯 SNS가 제공한 화면을 단순 반복하여 흥미위주로 보여준 TV뉴스의 보도방식은 SNS의 행태와 다름없어 보인다. ‘악마에쿠스’ 사건은 단순 실수일 뿐 차주는 악마와는 관계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을 뿐이었다.

KBS가 똑같은 전날 뉴스를 다음날 아침에 반복 방송하는 동안 한 조간신문은 ‘악마에쿠스’ 사건의 전말을 취재보도하여 ‘악마’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SNS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외수씨도 한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도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후보자를 지지했다가 팔로어들의 비난의 글이 폭주하여 트위터가 다운되었다며 트위터들의 일방적인 행태와 트위터의 부정확한 정보가 문제라

고 지적했다. 1분 30초짜리 뉴스가 제공하는 단편적 정보로는 시청자들이 올바른 사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광우병소 발생뉴스는 달라진 내용도 없는 뉴스를 뉴스시간마다 단순 반복했고, 광우병 발생소식에 “하루 종일 불고기 찾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는 식당주인의 인터뷰는 다음 날

하자는 다짐인데 우리나라 TV뉴스야말로 3N운동을 벌여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뉴스의 공정성과 기계적 균형

계층간 이념간 갈등이 일상화되다시피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지난 5월9일 통합진보당의 부정투표사건이 한창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때 KBS 9시뉴스는 통합진보당사태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박희태 전국회의장의 돈봉투사건과 민주통합당의 광주지구당 박주선선거운동원의 자살사건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몰타기 보도가 역력했다. 방송사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이런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기계적 균형 맞추기는 공정성도 객관성도 없는 비겁한 면피용 보도일 뿐이다.

SNS시대의 TV뉴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체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일부 계층과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TV뉴스를 불신하며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정통매체가 아닌 SN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메시지내용이 아니라 ‘콩국수’와 같은 그들이 추종하는 메신저가 표출하는 편협한 개인의견이나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이러한 SNS환경에서 정통매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스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화형 뉴스의 제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스제작자들의 전문성제고와 저널리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식화되고 관행화된 TV뉴스보도의 틀을 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4]

토마토는 순 항암제

지난달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토마토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좋아 평소 성인들 권장 과일로 꼽혔다. 그래서 토마토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알아본다.

토마토가 과일이나 채소냐 하는 시비가 한때 미국에서 정부와 업자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토마토를 채소로 판결을 내렸다. 어찌됐든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이다.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이다. 토마토가 건강식품

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킨다. 1995년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4만 7천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10번 토마토로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만들어진 음식을 먹은 사람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연구팀도 1주일에 7번 이상 토마토를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버드 의대의 지 오바누치 박사는 토마토의 항암작용은

특히 전립선암, 폐암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체장암, 결장암, 식도암, 구강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도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토마토 섭취로 인해 암 발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코펜은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기는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술 마시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토마토를 술안주로 먹는 것도 좋다.

토마토는 비타민 K가 많아 칼슘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줘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아울러 토마토에 들어 있는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7면으로 이어집니다.

통진당 경선부정 비판 온도차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0.3%의 정당 득표와 13개 의석으로 제3당이 됐다. 민노당 시대부터 300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으며 애국가를 거부해온 별종 정당의 목청이 국회에서 한껏 커질 상황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이정희 의원의 지역구 단일화 경선 조작 악수에 이어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 터지고 모태인 민주노총이 조건부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큰 위기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총사퇴 결정을 깔아뭉개는 ‘종북’ 당선자들의 버티기는 통진당 해산까지 거론하는 전면적인 통진당 비판이 되었다. 일부 좌파 언론은 우파지의 통진당 검증을 ‘수구’라고 매도하고 “진보의 생명이 도덕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체로 비례대표 사퇴와 재창당 수준의 쇄신 요구에 그쳤다. 반면 우파지들은 비례 사퇴는 물론 통진당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의 종북성을 지적하면서 종북의 국회 교두보를 만들어준 선거연대, 좌파 정권의 공안사범 사면복권, 이명박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비판했다. 경선 조작과 북한주장 복창이 정당 해산의 요건도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는 5월14일 사설 ‘통진당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 된다’에서 “통진당 당권과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통진당의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 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다. 통진당의 이런 종북적 행태가 당권과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5월7일 사설에서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은 대법원이 이적 단죄한 종북단체 주장의 복창”이라고 썼다.

야권연대에 대해 조선일보는 5월15일 ‘민주, 주사파에게 국회교두보 마련해준 책임 무겁다’ 사설에서 “주사파 당선자들이 나온 것은 민주당이 진보당에 지역구를 헌상한 덕이다. 민주당은 주사파 세력이 자신들이 깔아준 양탄자를 밟고 국회에 진출해 신변 보장을 받으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 활동을 벌이고, 더구나

국민 세금에서 활동자금 160억 원까지 받아 쓰게 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5월5일 사설에서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꿈꾼다면 통진당과 어깨동무를 한 채 끌려다니는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진당의 종북 성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主要紙들 ‘정당해산 요건’ 맹공 좌파지는 정직성 훼손만 거론

향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보당 북한식 투표 훔내 내려면 진보 간판 내려라’ (5월2일), 동아일보는 ‘민주주의 DNA없는 통진 당권과 북 닮았다’ (5월7일), 중앙일보는 ‘진보당 왜 애국가 안 부르나’ (5월13일)라는 사설 등으로 비판했다.

‘종북 사고 집단’과 ‘마녀 사냥’ 총돌

좌파지가 통진당 선거 부정을 진보의 정직성 훼손으로 비판한데 반해 우파지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것 자체에 공격을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5월8일 사설에서 “국민은 진보당 사태를 통해 진보라는 가면 뒤에 감춰졌던 ‘종북 사고 집단’의 민낯을 보게 됐다. 진보당 종북 세력은 가슴에 ‘인권과 평화’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도 북한 수용소의 처참한 실상엔 눈을 감았다. 김씨 왕조가 주민 1년치 식량을 미사일 한 발에 날려 버리는 데 입 한 번 뱉지 않았다. 이 사고 집단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거짓 선전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불태우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바로 그 세력”이라고 맹공격했다. 반면 한겨레는 5월7일 ‘통진 당권과 진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며 통진당의 도덕성을 촉구했고 한국일보는 5월3일 사설에서 “당내 민주주의 절

차에 대한 심각한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내 13석을 차지한 제3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처절한 반성이 없다면 통합진보당의 내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5월1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국회 들어오는 대한민국 부정세력 못 막는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학자들의 말도 전해 비교적 균형된 시각을 보여줬다.

이석기 당선자의 특별사면도 비판 받았다. 조선일보는 5월15일 “(노무현 정권)특별사면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재검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썼고 중앙일보는 5월20일 “이 당선인은 북한 지령을 받은 민혁명 핵심 간부로 활동해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간첩활동을 했거나 그에 동조한 종북 인사들까지 인권 피해자, 민주투사로 둔갑해 큰소리치는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썼다.

종북 세력 발호 방지한 이명박 정권

정치권의 종북 세력 득세는 정권, 제1야당과 집권당, 언론의 공동 책임이다. 2011년 8월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와 국민행동본부는 위헌 정당 해산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청원했다. 매스컴의 철저한 외면 속에 법무부가 판전을 피우는 사이 민노당은 통진당으로 문패를 갈았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며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으로 종북의 발호를 방지한 이명박 정권답다. “이념의 시대 갔다던 MB, 지금 사태 보고 있나”라는 동아일보의 5월18일자 사설은 그런 점에서 타견이고 정론이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음에도 이념에 대한 ‘무개념적 태도’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남은 임기 중이라도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작년 8월 취임 일성으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했던 한상대 검찰총장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 앞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설교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 세력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신문들은 중차대한 18대 대선을 앞두고 종북의 정체와 확산, 비호세력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심층적인 메스를 가해 정치소비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국민들은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기계가 아니다. [4]

민국’을 반박하는 사설 ‘통진당에 대한 비이성적 색깔론을 경계한다’에서 “이런 제목은 국회에 이적세력이라도 침투한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진당 당권과의 폭력 사태와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들이 이들에 대한 자의적 사상검증과 공안몰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호했다.

국익을 지킬 최전선에 선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가보안법위반 전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상검증도, 공안몰이도 아니다. 붉은 것을 붉다고 지적하는 게 왜 색깔론일까. 이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에 사과를 외면하고 핵개발로 드러나는 북한의 호전성을 이중잣대로 묵과하는 내부의 자폭 세력을 제거하려는 자위 본능이자 막대한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국민들의 정당할 알 권리다. 한겨레는 5월18일 ‘종북 색깔론 마녀사냥은 보수 재집권 전략’ 기사에서 “비례대표 선출 선거부정의혹에서 출발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종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빌미는 통합진보당 안팎에서 제공했지만 새누리당과 보수 성향 신문들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빨갱이 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도 “통합진보당 당권과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이나 3대 세습에 대해 분명한

6면에서 이어집니다.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짜게 먹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토마토는 파란 것보다 빨간 것이 건강에 더 좋아 완전히 빨갭게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으나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열을 가해 조리해 먹는게 좋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와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 예를 들면, 토마토 소스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생 토마토의 5배에 달한다. 토마토의 섬유질 성분은 대장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없애주며 또한 최적의 비타민C 공급원으로 꼽힌다. 한 개만 먹으면 하루 필요량의 3분

의 2를 충족시키며, 고기나 생선 등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위 속에서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산성 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영국에서는 '사랑의 사과',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뽀모도르)'라고 불리는 토마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암을 예방

하는 10대 식품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그 첫 번째 식품으로 토마토를 꼽았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일년내내 먹을 수 있는 토마토는 원산지가 남미 페루이고, 16세기 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즈음 유럽으로 건너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재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초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4]

풍광 수려한 계곡서 흥겨운 하루

본회 봄철 체력단련 대성황

대한언론인회는 5월 25일 강원도 홍천 모듈자리 관광농원에서 봄철 체력단련 행사를 가졌다. 홍원기 회장을 비롯, 80여명의 회우들이 찾은 모듈자리 관광농원은 1986년 설립된 곳으로 1994년 농림수산부로부터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11시 30분께 도착한 회우들은 모듈자리 인근 서봉사 계곡까지 삼삼오오 도보로 산책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서봉사 계곡은 홍천군 서석면의 대표적인 계곡으로 서석면의 응봉산 남쪽에서 신장동과 지장동을 거쳐 서봉사 앞쪽을 흐르는 계곡으로 곳곳에 기암괴석이 널려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은 숲과 어우러져 체력단련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서봉사는 비록 고찰은 아니지만 큰 법당의 뒷마당 솔밭 사이에 삼성각, 나한전, 팔도산신각 등의 전각과 불상들이 있다. 서봉사에는 특히 팔도산신각이라 하여 팔도의 산신이 별도로 모셔져 있다.

홍천 숯불구이 삼겹살로 오찬을 들고 흥겨운 노래자랑에 심취한 회우들은 귀로에 하이트 맥주공장에 들러 맥주가 생산돼 나오는 전 과정을 견학하고 맥주를 마음껏 시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모듈자리 관광농원에서 참석자 기념촬영.



하이트 맥주공장 견학.



숯불삼겹살로 즐거운 오찬.

본회 산악회, 황매산 철쭉꽃 山行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정운종)는 지난 5월 17일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경남 함천의 황매산을 다녀왔다. 지리산 바래봉과 더불어 5월이면 철쭉으로 수십만평의 대평원을 진홍빛으로 수놓는 황매산은 등산객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는 봄철 산행지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명산이다.

이날 해발 800m 대평원에 광활하게 펼쳐진 철쭉군락지에 오르면서 그간 잦은 비와 강풍으로 예상보다 철쭉이 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회우들은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 밭을 누비며 즐거운 산행을 했다. 또한 이날 현지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져 해발 700m까지 셔틀버스와 택시로 오르는 이색 산행을 벌여 회우들의 환호를 받았다. 정상(해발 1,108m)을 중심으로 펼쳐진

대평원 중앙에 차려진 황매산 제단에서 회우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철쭉산행의 보람을 만끽했다. 산행 귀로에 들른 산청군 생초면 남강변의 민물 매운탕 집에서 벌인 뒤풀이 행사에서 정운종 회장은 성공적인 황매산산행에 협조해준 회우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봄철 산행지로 황매산을 선택한 본회 산악회는 먼 거리여서 회원의 참여가 저조할까 걱정했으나 이날 기상대의 곳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회우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경향신문OB산악회 회우들이 동행해 산행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참여한 본회 원로 회우들이 산행 분위기를 돋워주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날 산행에는 지용우 조창화 강한



황매산입구에서 산악회원들의 기념촬영.

필 안중우 정운종 최귀조 조성한 우재근 경향OB팀이 찬조금을, 참여 회우전원이 참가비를 내주었으며 황귀근 회우가 막걸리(15병)를 찬조해 주었다.

앞으로 산악회는 가을철에 원거리 산행을 할 예정이며 간간이 근교산행에 나설 계획이다.

글 이상호(본회 사이버위원장)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에
「기업」이란 글자가 들어 있어,

아직도
기업은행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 주부, 군인, 근로자, 회사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IBK홍보대사
송해 · 김유빈 (MBC 애정만민세 다들덕 출연)

언론인 거쳐 외교관 ... ‘한국홍보’ 열거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7)

회우초대석

인터뷰 : 글·사진

柳志鎬(80) 본회 회우의 이력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신문기자로 출발하여 신문경영에 ‘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관리형 언론인이다. 관계에 진출, 문공부 해외공보관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힘썼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시작으로 외교관이 되어 주 예멘 대사 등을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신문학을 공부했으며 퇴임 후에는 대학 강단에서 통일문제와 국제관계학을 강의했다. 흰철한 키에 짙은 눈썹과 화색이 감도는 얼굴, 씩씩이 쏟아내는 달변에 에너지가 넘친다. 기자의 면모 보다 관리형에 학자풍의 노신사다. 지난 5월 15일 프레스센터 부근 음식점에서 다양한 경력의 人生 歷程을 들었다.

“애증 교차하는 아버지”

-선친이 柳鴻烈(1907~1966) 제헌의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친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 충북 제천에서 출마하여 네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 됐어요. 그 뒤 2대에서 6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잇달아 출마했으나 연속 차점으로 낙선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국회 진출의 집념을 버리지 못해 살림이 기울어 학창 시절을 거지처럼 보냈지요.”

-정치인 아버지와 자연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반세기가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발언이 제헌국회 본회의장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속기록과 자료 등을 뒤져 확인해 보면서 처음으로 선친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주화가 된 요즘 국회는 특하면 단상을 점거하며 난투극을 연출하는 것에 비해 제헌의원들은 긴장된 상황에서도 의사진행 규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격한 논쟁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용중 저 ‘대통령의 무혈혁명’에 따르면 ‘1950년 3월 10일 본회의 이틀째 질의에서 입민구락부의 유홍렬은 이(헌법개정안) 문제로 “공산당 프락치사건이 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준다면 모를까...”라고 말한 것이 큰 소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6척 장신의 선친은 제천군 청풍면 문화 유씨 종가에서 태어나셨고, 유교 전통을 고수하며 원칙에 완고하고 청렴 하셨습니다. 수원에서 통학하며 경성제2고등보통학교(경북고 전신)를 나와 청풍, 주문진, 문막 금융조합에 근무하다가 8·15 광복 몇 해 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셨어요. 1945년 해방이 되자 주민들에 의해 청풍면장에 영입되었고 제헌의원에 당선되는 계기가 된 거죠” 1966년 해외유학시절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늘 가슴 한켠에 남아 찡하다고 덧붙인다.

-선친과는 경북고 동문이지요

“청주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1948년 서울로 이사하여 경북고를 다녔어요.



유지호 회우는 “신문경영에 ‘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 정착시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신문경영 ‘예산제’ 첫 도입 ... 6개월만에 한국 발전상 알리는데 심혈 ... 예멘과

가세가 기울어 대학교(고려대 생물학)는 시쳇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녔습니다.”

“영어 잘한다”코리아타임즈 발령

-기자가 된 동기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신문기자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했어요. 취직하여 자립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거죠. 1958년 한국일보 공채 8기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어 성적이 좋으며 자매지 ‘코리아 타임즈(KT)’로 발령을 냈어요”

영자지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일보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하던 것이 그 시절의 관례. 경제분야 기사를 번역해 게재했던 그는 기자단에 가입 안 된 부흥부에 드나들며 자발적으로 취재하여 기사를 썼다. 발로 쓴 기사 덕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와 다르게 정확하다는 입소문이 당시 宋仁相 부흥부장관의 귀에 들어가고 주한 외국인

사이에 퍼지면서 KBS와 함께 기자단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KT에 근무하면서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 유학, 신문학을 공부했다. 1962년 말에 귀국한 그는 한국일보로 복귀했고, 정치부에서 중앙청과 공보부 등을 출입하며 의욕을 불태웠다. -1964년 서울신문사로 스카우트될 때 편집국이 아닌 기획실로 옮긴 이유는?

“미국신문협회(우리나라 신문협회와 비슷한 기구지만 발행인 뿐 아니라 제작국장 등 참여)가 국제신문인협회(IPI)의 후원을 받아 개도국인 한국 언론의 경영실태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경영 전문가를 파견했어요. 파견단 대표는 프랭클린 셔즈(Franklin D. Schurze) South Bend Tribune紙 저널 매니저였지요. 60일 동안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기간에 그를 보좌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고 신문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신문협회에 의뢰했고, 張基榮 사장의 추천으로 셔즈 일행과 전국 신문사를 순회하며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권유 했습니다.”

당시 한국 신문의 경영실태는 열악했고, 대부분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서울신문사를 방문한 셔즈는 張太和 사장에게 “신문경영에 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의했다. 張 사장은 “적자가 나는 형편에 예산제 도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셔즈는 “적자를 매우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영합리화를 촉구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지호 기자는 장태화 사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망설임 끝에 수락하여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 언론경영의 관리자가 됐다.

-예산제 도입은 성공하셨나요?

“그 시절 신문용지 확보가 무척 어려웠는데, 인쇄 때 파지가 20%나 났어요.

정 지금도 자공심

柳志鎬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 전 외무부대변인
- 전 LA한국문화원장
- 전 주 예멘 대사

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미국과 일본의 1%에 비하면 엄청난 손실이죠. 낡은 운전기도 문제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실무자들의 인식 부족이었죠. 실무자 교육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파지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한국 신문사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출 항목과 수입항목을 점검하며 제작 및 지출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기여했다는



주 예멘 대사 시절 살레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유지호 회우.

안에 흑자로 修交 큰공

것. 예산제 도입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자 1966년 두 번 째 유학길에 올라 콜롬비아대학에서 신문학을 수학했다.

“장태화 사장은 제게 참 고마운 분입니다. 유학 떠난 후 선친이 작고했는데 ‘공부하러 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으며 총무처 출입 시절 丁一權 총리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지금의 제 처와의 결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어요. 1년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신문사에서 총무, 광고, 제작국장, 기획심사실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해외홍보관으로 관계 진출”

-언론계를 떠난 계기는?

“1972년 대한일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으나 사양했고, 한양대학교에서 기획실 신설 제의를 받아 내정된 상태에서 李揆現 코리아나퍼블릭 편집국장(전 문화공보부 장관)의 추천으로 해

외공보관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심할 때 尹靑榮 문화공보부장관이 장태화 서울신문 사장을 만나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여 14년간 재직한 언론계를 떠나 관계로 진출했어요”

-해외공보관 첫 임지는?

“주 인도대사관 공보관입니다. 당시 盧信永 전 국무총리가 공관장이었고, 북한의 영향력이 큰 시절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영어로 정기간행물(월간)을 2만부 발행하여 배포했습니다”

-현지 반응은?

“북한 견제와 비판 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한국의 발전상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어요”

-1975년 주 일본 대사관 공보관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은?

“당시 李元洪 전 한국방송공사사장이 직속 상사였고, 수석공보관으로 문화를 담당하게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韓國美術五千年展’입니다. 李源京 문화공보부장관과 李用熙 국토통일원 장관의 협조를 받아 東京, 京都, 福岡 세 도시를 순회 전시하여 한국문화가 일본문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식시킨 게 큰 성과였지요”

-2년 뒤 LA문화원장으로 부임 하셨군요?

“문화원으로 사용할 낡은 건물만 있을 뿐 백지상태에

서 시작하러니 애로점이 한두 가지 아니었지요. 미국 문화계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더니 한국에 독창적인 문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였으니까요. 독창적인 언어와 다양한 문화가 많다고 했더니, 한중일의 건축, 정원 등을 비교하여 알려라고 하더군요. 인도에서처럼 ‘코리아 컬처’라는 정기간행물을 만들어 언론사,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포했어요” 하지만 교민들은 “우리를 위한 게 없다”고 반발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당시 브레들리 LA시장 등과 함께 코리아타운 청소 등 가시적인 활동을 펴며 정착 단계에 접어들 무렵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국보위가 설치되면서 소환됐다.

예멘 대사 거쳐 통일문제 강의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된 배경은?

“산사에 들어가 6개월 동안 외무공무원 시험공부를 한 뒤 합격하여 해외공보관에서 외무공무원이 된 뒤 1981년 대변인 발령을 받았죠” 그 뒤 유지호 회우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주 서베를린 총영사관 총영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인도네시아 공사 등을 거쳤다.

-예멘 대사 시절은 남북예멘이 분단된 시기였지요?

■斷想■ 下山길의 교훈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 - 전문적인 산악인은 물론 산을 좋아하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膾炙)되는 등산관련 명언이다.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맬러리(George Mallory)가 1923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간

명하게 대답했다. 20여년 이상 등산을 해온 나 역시 누가 왜 산에 가느냐고 농담으로 나마 묻는다면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뚜렷하게 설명할 말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는 재미가 컸다. 그러나 나이 70을 넘어선 지금에는 그런 성취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은, 그저 생활 습관일 뿐 특별한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다. 더구나 산에 올라 갈 때와 내려 올 때의 느낌도 젊은 날과 크게 달라졌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힘겨워도 정상을 ‘정복’ 하겠다는 오기가 발동하곤 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를 때 힘이 들면 들수록 내려오는 발길은 경쾌했다. 하산 길을 ‘식은 죽 먹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다.

내려 올 때마다 발의 균형 잡기가 어렵다. 관절이 노쇠(?)한 탓인지 통증도 가끔 온다. 병원 의사는 내려 올 때 될 수 있으면 돌을 던



최귀조

·본회 이사

·평화언론포럼 회장

지 말라고 한다. 흠을 밟을 때 보다 훨씬 더 관절에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하산 길은 조심스럽고 힘들다.

정상 오르기 힘들면 중도에서 중단할 수 있다. 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산은 다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상으로 내려 와야 한다. 그래서 하산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인 듯 싶다.

젊은 날엔 무리해서라도 사회적 입신을 꾀한다. 그래도 어떤 조직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정상을 정복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에 결국 사고를 치는 사람이 흔하다. 요즈음 권력 주변이나 정·재계에서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부정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탐욕 때문에 인생의 하산 길에 나락으로 추락한 셈이다.

실제의 등산 사고도 대개 하산 길에 일어난다. 전문 산악인도 힘들게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내려오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높은 지위에 오른 공직자의 경우도 인생의 황혼기에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성공적인 퇴장이 어렵다. 인생의 하산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등산 후 하산 할 때 마다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필자]

“그렇습니다. 남북예멘간의 통일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90년 3월 초 북예멘에 부임하여 정부 훈령에 따라 남예멘 정부와 수교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달리 남예멘 외무장관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수교제의를 수락하여 두 달 뒤 5월 17일 외교관계 수립이 발표됐어요. 이 보다 4일 앞서 통일 예멘 공화국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1993년 8월 북부정권이 남쪽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1994년 5월 전면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 7월 북예멘의 일방적 승리로 남예멘의 분리 독립 기도를 가가스로 좌절시켰다.

“‘아랍의 봄’으로 33년 넘게 이어진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마감하는 예멘 대통령 선거가 지난 2월 치러졌고,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각 부족과 무장세력으로 갈라진 예멘 사회의 통합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한다.

그 뒤 워싱턴 소재 존스 홉킨스대학 SAIS 부설 외교정책연구소에서 예멘과 독일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한 유 회우는 1996년 국제교류재단 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대학 강단에서 통일문제와 국제관계학을 강의했다.

저서는 남북 예멘이 평화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예멘의 남북통일’(서문당 1997)과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자서전 ‘내가 걸어온 인류국가의 길’(문학사상사 2001)역저 등 다수.

일주일에 서너 번 헬스클럽에 들러 운동하고 평소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다진다고 한다. 술은 체질에 맞지 않아 잘 마시지 않고, 담배는 첫 아이를 낳고 끊었으니 40여년 땀다는 것. 부인 전영상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 아들 산권(35)씨는 뉴욕에 있는 종합미디어 그룹 캠퍼스트 팀장, 장녀 유미(41)씨는 한국문화교육진흥원, 둘째 딸 난이(40)씨는 ‘리움 미술관’에 근무. [필자]



운해 위로 치솟은 기암괴석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천자산의 황홀경.

거대한 천연조각 풍광에 취했다

張家界탐방

두 아들의 원조를 받아 5월 초순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장가계(張家界)를 다녀왔다. ‘칠순 부부 여행’이다. 장가계는 중국이 자랑하는 5대 명승지의 하나다. 깎아지른 까마득한 절벽들, 하늘로 우뚝 치솟은 장엄한 석봉군(石峯群), 석봉 바위벽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는 소나무들, 골짜기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시원한 폭포 줄기들이 거대한 한 폭의 그림인 양 절묘한 풍광을 빚어낸다.

장가계를 보고도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는다면 정녕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동행했던 한 영감은 “야! 감동 그 자체다.” 하면서 연방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90%를 차지하지만 가는 곳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날 수 있었다.

장가계 관광은 천문산(天門山·1,519m)과 천자산(天子山·1,334m), 토가족 민속촌, 호수와 동굴 관광 등으로 나뉜다. 장가계 시내 중심가에서부터 천문산 꼭대기까지 7.455km에 걸친 케이블카를 타고 30분을 오른다. 1년 내내 비가 내린다는 장가계는 며칠 동안 얇은 구름만 끼어 있어 조산족 안내인이 행운을 맞았다며 관광객의 비위를 맞춘다.

계곡에서 절벽 정상상을 향해 케이블카가 숨가쁘게 오를 때는 가슴이 오싹해 진다. 거대한 바위 구멍(높이 131.5m, 너비 57m)이 뿔뿔히 1999년 아시아 국제비행대회 때 비행기가 에어쇼를 하면서 드나들었다는 천문, 즉 하늘 문이 바로 눈앞에 전개된다. 정상에 발을 내디디자 기묘한 산길이 나타난다. 이름하여 귀곡잔도다. 아득한 절벽을 따라가며 1.5m 너비로 절벽 길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쪽은 절벽이요,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다. 지옥길이라 하여 까마득하게 밑바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투명한 유리를 깔아놓은 절벽 길을 지날 때는 오금이 찌릿찌릿해 진다. 1시간을 걸어서야 절벽 길을 벗어날 수 있었다.

산 중턱에서 5층짜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꼬불꼬불 S자 산길을 버스로 20여분이나 올라가 천문에 이르는 코스를 만들어 탐승객들

에게 신비스러움을 더해 준다.

두 번째 코스는 기적의 천자산이다. 그 유명한 미국 영화 ‘아바타’를 촬영한 장소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산 중턱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200m 고지까지 올라간 다음 40분 가량 버스를 타고 가다 1,000m 고지에 내려놓는다. 이제부터 천자산 대협곡을 탐험할 차례다. 높이 600m에 달하는 협곡 양 옆으로 철골을 막아 아래쪽으로 90도 각도로 하산하는 계단을 만들었다.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난간에 손을 잡고 부들부들 다리를 떨면서 조심 또 조심 한 걸음씩 내디뎠다. 30분 걸려 하산하니 여전히 다리가 떨렸다. 대단한 토목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곳에서 8km에 이르는 계곡 길을 따라 걸으니 호수가 나타났다. 산 속에서 배를 타고 주변 경관을 감상한다. 이어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1,000m 고지라고 했다. 여기서부터는 천자산의 하이라이트를 둘러보게 된다. 우리나라 금강산이나 천하 절경 중국 황산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석봉군을 만날 수 있다. 능선들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500~600m씩 짙은 돌기둥 봉우리들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게 코스를 꾸며 놓았다. 우뚝우뚝 치솟은 석봉은 무려 3,103개나 된다고 한다. 석봉들이 저마다 천변만화의 형상을 이루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산 전체가 열린 구름에 뒤덮여 구름 사이로 솟아오른 기괴한 봉우리의 향연은 영화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다.

1시간 동안 석봉 코스를 돌아보며 감상한 다음에는 320m 높이 백룡 엘

김윤재(본회 회우·전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장가계 표지판이 선명한 십리계곡 입구에서.

리베이터를 타고 하산했다. 절벽 바위에 바짝 붙여 거대한 철골 탑을 세워 2개 층으로 나누어 20명이 타는 대형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이다.

거대한 석봉들을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게 길을 낸 십리계곡과 8km의 모노레일 또한 감흥을 더해 준다. 가까운 곳에는 보봉(寶峰)호라는 호수가 있어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이곳만의 특유한 물고기가 서식한다. 작은 양식장에 키우는 물고기를 보니 마치 메기 같이 생긴 지느러미가 4개 달린 민물고기였다. 중국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를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꼭 찾고 싶은 절경으로 손꼽는다.

십리계곡 인근에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토가족들이 산속에 살았던 흔적을 담은 토가족 민속촌이 있다. 장가계 지역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원숭이와 호랑이를

숭상한다 하여 이곳 마을을 원가계(猿家界)라고 부른다. 이들은 천문산과 천자산을 중심으로 1965년까지만 해도 산속에 살면서 산적으로 살아온 민족이어서 소수민족 가운데는 가장 용맹스러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장가계는 원래 토가족이 사는 대룡(大庸)지역으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2년 중국 최초로 국가삼림지역으로 지정하고 199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본격적인 관광지개발과 더불어 만년에 한고조가 사망하자 이곳으로 피신해 살았던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량의 가계를 본따서 張家界로 호칭하면서 세계적인 명승지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여우와 선녀 이야기로 꾸민 천문산을 배경으로 한 야간 뮤지컬 쇼는 관광객들에게 오랜 추억을 선사한다. 등장인물만도 5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 영화계 거장 장예모 감독의 작품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연간 25만명에 달해 후난(湖南)성 정부의 외화수입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성에서는 관광지마다 안내 표지판에 중국 한자와 한글로 적어놓고 있다.

빠어난 관광지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음식 개발은 미약한 편이다. 모든 음식이 느끼하고 간이 제대로 맞지 않으며 담백한 맛이란 찾을 수 없었다. 돼지고기 특식, 불고기 특식이라고 내놓은 음식도 중국식이어서 느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5성급 호텔에서 제공한 특식도 고약한 냄새만 풍겼지 우리 입맛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맛보는 중국음식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중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고추장을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돈 천원짜리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장가계 관광은 이전에는 북경이나 상해를 거쳐 국내선을 타고 접근했으나 2011년부터 성도 장사(長沙)에 비행장이 생기고 대한항공 직항노선이 개설돼 편리해졌다. 장사에서 장가계까지는 고속도로로 4시간거리다. [출처]

BC 5세기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시냇물에 두 번 목욕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심지어 태양도 변한다. 어제 뜬 태양과 오늘 아침에 뜬 태양이 다르다. 왜냐면 태양 표면에 코로나(Corona)가 계속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인가? 인류의 멸망, 지구의 멸망을 예언한 천재과학자 뉴턴(Newton)에 의하면 그 변하는 것 들 때문에 인류는 또는 지구는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 ① 자연환경과괴
- ② 화산폭발과 지진
- ③ 남·북극의 빙산이 녹아 내리는 현상
- ④ 행성과 지구의 충돌
- ⑤ 전염병
- ⑥ 전쟁 및 핵무기
- ⑦ 식량고갈

위에 열거한 것들이 지구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100년 전, 심지어 50년 전의 모습과 달리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의 대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장 10년 이내로 큰 변(變)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봇(Robot)의 경우는 심각하다. 1984년 일본 동경에서 ‘세계 로봇 박람회’가 열렸었다. 그 당시 6살짜리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다. 이 로봇은 냉장고 문을 열고 오렌지 주스를 꺼내오는 등의 행동으로 인기가 대단했었다.

그 후로 만 20년, 로봇 연구는 잠자고 있었을까? 천만에! 어쩌면 앞으로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이내로 IQ 100이 넘는 로봇이 만들어 질 것이 분명하다. 이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隨想■

보장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가슴뿐일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은 변한다. 생각도 변하고, 머리도 변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다. 그 가슴을 차갑게

하느냐, 뜨겁게 하느냐, 아니면 열린 가슴이냐, 닫힌 가슴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슴을 뜨겁게 하거나 또는 닫힌 가슴을 열어놓는 것을 문화적인 사고로 접근해보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론이다. 가슴이란 문화의 고향이고, 문화란 가슴을 열어주는 중요한 모티브인 것이다.

18세기 후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연암 박지원(朴趾遠·1737~1805)과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주장했던 이론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소용돌이를 예상하고 나라가 마치 폭풍 전야 속에 있을 듯한 그 무렵에 이 두 학자들은 이 나라 문화의 정체성을 걱정해왔음이 역력하다. 우선 연암 박지원이 임금께 바친 상소문에서 발췌한 것을 소개한다.

“옛날에 민(民)이라고 한 것은 네가지로서, 사(士) 농(農) 공(工) 상(商)입니다. 사(선비)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농·공·상의 일도 그 시초는 성인(聖人)의 이목(耳目)과 심사(心思)에

태양도 변한다



정홍택

·본회 자문위원
·전 한국일보 출판국장
·세종대 석좌교수

서 나온 것입니다. 대대로 전승된 것에는 그 학설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중략) 그러나 선비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삼자의 일은 반드시 모두 선비를 기다린 뒤에 이뤄집니다. 이른바 농사를 밝히고, 상품을 통하게 하고, 공민에게 슬기를

주는 이는 선비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신하인 제가 짐짓 생각해보니, 후세에 농·공·상이 일을 잘못하는 것은 바로 선비에게 실학이 없는 허물 때문입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학(博學)을 해야한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속유(俗儒)일 뿐이다.”

위와 같이 연암이 갈파한 ‘실학’과 다산이 주장한 ‘박학’은 오늘날 어떤 것일까? 이 두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시대상에 비춰볼 때 놀랄 만큼 과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그 당시에 우리사회에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士)는 무엇인가? 반드시 학자(Scholar)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다. 문화가 오직 이 사람들에게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생각하라

고 지적한 것이 실학(實學)이고 박학(博學)인 것 일 것이다. 농(農)은 생활문화의 기본이 되는 농사일(Agriculture)이고, 공(工)은 제조 또는 지식 정보화 사업의 틀(Manufacture)이며, 상(商)은 유통(Commerce)을 말하는 것이다.

연암은 농·공·상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들을 감독하고 이끌어 가야 할 선비에게 잘못이 있다고 선비의 책임을 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은 오늘날 처해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선비의 책임감이란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각종 지도자들이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바로 그 나라 문화의 척도와도 같은 것이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문화가 말한다.’(註)라는 책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1960년대 한국(South Korea)과 아프리카 가나(Ghana)의 경제적인 데이터를 조사해 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 두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입장이었는지를 보고 놀랐다. 두 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 기초경제규모, 제조공장의 형편 등등이 거의 같은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가나는 같은 수준으로 외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대국(註:2000년 통계임. 2005년에는 12번째)이 되어있다. 그리고 가나는 아직도 한국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다. 어쩌서 이런 큰 차이가 생긴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가 말해준다’고 나는 믿는다. (Samuel P. Huntington) ■註: ‘Culture Matters’ 로렌스 해리슨과 새뮤얼 헌팅턴이 함께 편집한 책으로, Harvard 대학교의 국제 및 지역연구 아카데미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한 23명 학자들의 원고가 실려 있음. (Basic Books 출판, 2000년)

언론가 소식

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사장 취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이원창 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사진)이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추천 절차를 거쳐 이원창 현 코바코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3년)다. 이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와 경향신문 외신부장 과 논설위원,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14일부터 코바코 사장으로 일해 왔다.

CBS 이재천 사장 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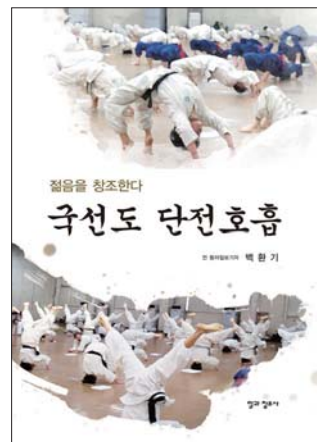
재 단 법 인 CBS는 지난 5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천 사장(사진)을 3년 임기의 차기 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재천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3년간 CBS를 이끌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는 한편 방송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 TV, 신문 등 모든 플랫폼에 CBS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 정책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CBS와 한국 교회의 관계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우들이 펴낸 新刊

백환기 회우 ‘국선도 단전호흡’

백환기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위원)가 12년 동안 수련해온 ‘국선도 단전호흡’을 책으로 펴냈다. 백 회우는 10여 년전에 사범과정을 거쳐 지금은 진단기법 연사분심을 수련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사범 교육을 받을때의 강의록과 덕당정사의 ‘덕당 국선도’를 참조하여 집필했음을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총론에서부터 경혈 지압법, 기화 양생기공법, 조식법 등 국선도의 각종 수련법과 그 효과 및 국선도의 특성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한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총론의 몇편 칼럼만 읽어보고 주변에 있는 국선도 수련장에 나가서 직접 수련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몇 개월 수련을 하다 보면 몸에 원기가 왕성해지고 활기와 정력이 넘쳐 흐르게 된다. 왜 진작 국선도 수련을 하

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나올 수 있다. 이때쯤 되면 이 책이 왜 옆에 있어야 하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건강과 행복이 화두인 요즘 시선을 끌만한 화제의 책이다. (Basic Books 출판, 2000년)

溫故知新

고조선과 遼河文明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한국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격하시키려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탈취 기도가 참으로 집요하다. 고구려·발해사 강탈도 모자라 이제는 고조선사까지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고구려·발해사 탈취도 모자라 이제는 동북아 고대文明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문명사의 강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의 중화제국주의 부활과 역사 패권주의적 불순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단대공정(斷代工程)·동북공정(東北工程)·탐원공정(探源工程)을 통해 고구려사·발해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 즉 한국 문명사의 기원까지 강탈하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이제는 ‘중국문명은 황하문명뿐 아니라 요하(遼河) 유역의 동북문명이 합쳐진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요하 유역과 발해만 일대, 만주는 고조선문명의 발상지요 한민족사의 요람이었다. 고조선에 이어 부여·고구려·발해가 차례로 일어난 우리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중국 정부의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사학계의 이와 같은 고대사 강탈 작업은 중국 고대사가(史家)들의 역사 서술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 나라는 동이(東夷)나 서융(西戎)이니 남만(南蠻)이니 북적(北狄)이니 하여 모두 ‘오랑캐 족속’이라는 오만하고 비뚤어진 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다.

중국이 우리 고대사의 뿌리인 ‘요하문명’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탐원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이미 잘 알려진 동북공정(2002~2006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탐원공정은 중국의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편입하려는 단대공정(1996~2000년)에 이어 중국문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중국이 황당무계한 역사 왜곡과 강탈을 자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중국사의 뿌리가 한국사보다도 훨씬 짧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사의 시원은 황하(黃河) 유역의 신석기·청동기문화, 곧 황하문명설이 주류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근래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7000~1500년의 신석기·청동기 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비파형 청동검·돌무덤 등 한국고대사의 특징인 유물·유적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학계와 정부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한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殷墟) 유적보다 훨씬 오래전의 갑골문(甲骨文)이 이 지역에서 출토된 사실이다. 이는 고조선의 요하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앞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는 까닭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국은 모두 오랑캐라는 오만방자한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역사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학계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한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친북반미에 앞장서는 일부 지식인들은 어찌하여 중국의 한민족사 강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고구려·발해의 역사에 이어 백제와

고려사도 중국의 변방사가 되고, 동명성왕·온조대왕·광개토대왕·근초고대왕·을지문덕·연개소문·계백·장문휴 같은 한민족사의 영웅호걸이 모두 중국인으로 둔갑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이나 또는 단대공정이나 하며 중국사 정비에 열을 내는 이유는 결국 소수민족들의 봉

기로 중국이 다시 남북조시대나 5호 16국시대처럼 사분오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우만 보자. 과연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던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을까. 고구려의 역사는 서기전 37년 건국부터 서기 668년 망국까지 28왕 705년을 유지했다. 그 동안 중국 땅에는 후한부터 당까지 무려 33개 나라가 저마다 황제의 나라를 자처했는데, 그 가운데 200년 이상 지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오래 간 나라가 196년을 유지한 후한(後漢)이요, 그 다음이 103년인 동진(東晉)이다.

심지어는 왕이 1명뿐인 남북조시대의 동위(東魏)나, 겨우 7년 만에 망한 후량(後梁) 같은 하루살이 제국도 수두룩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했다는 삼국시대도 위(魏)·오(吳)·촉(蜀) 3국의 임금이 모두 11명에 60년밖에 가지 못했다. 또 신라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唐)나라도 20대 290년을 이어갔을

뿐이다. 또한 동진 이후 중국을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치다가 망한 수(隋)나라는 겨우 3대 38년 만에 망했다.

고구려가 ‘속국’으로 있는 705년 동안 중국에선 33개 나라의 흥망이 무상했으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본국’이 어찌 있단 말인가. 사실(史實)이 이렇함에도 중국은 입만 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궤변을 나불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이 이처럼 역사왜곡·날조와 탈취에 집착하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중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의 다수민족이란 한족(漢族)의 역사는 별 볼일 없었기 때문이다. 한족이 세운 나라는 진(秦)과 한(漢), 그리고 동진 이후 송(宋)과 명(明)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나라 양씨(楊氏)와 당나라 이씨(李氏)는 원래 조상이 탁발씨(拓拔氏),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요(遼)는 거란족, 금(金)은 여진족, 세계적 대제국 원(元)은 몽골족, 오늘의 중국 판도를 이룩한 청(淸)은 여진족... 그러니까 성세를 자랑하던 중국사의 대부분을 화하족(한족)이 동아·서융·남만·북적이라 부르며 멸시하던 ‘오랑캐’의 역사였던 것이다.

중국이 자기 땅에 있던 나라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라고 강변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중국사는 고조선사에서 비롯됐다고 당당히 주장하지 못할 것도 없다. 비파형 청동검으로 대표되는 고조선의 요하문명이야 말로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천년이나 앞선 문명이 아닌가. 더군다나 중국사의 여명기를 이끈 주역들 모두가 사실은 동이족이 아니었던가.

중화제국주의와 역사패권주의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중국공산당이 언제까지나 중국대륙을 지배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몽골도, 티베트도, 서장도 모두가 역사와 언어, 종교가 다른 고유의 민족이다. 이들이 독립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국문]

노인은 ‘사회의 짐’이 아니다



노상국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심의위원
- OJR 정보평론대표

‘재정건전성을 논할 때 한국은 아직은 괜찮은것 같으나 반드시 나빠진다. 그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 사설의 한 구절이다.

고령화가 복지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며 그러므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는 장래에 스페인과 같이 “퍼주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고령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장년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계층으로 탈바꿈하기위해서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의식과 제도를 바꿔보자는 운동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있다.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룬 경제성과가 자신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우려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고령계층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자고, 그래서 다시한번 기적을 이

뤄보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노년복지가 수혜를 전제로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부를 창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집단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노년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 놓은 주체들이다. 산업화에 뒤늦게 진입해 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대열에 앞장서 진입시킨 정보화선진국의 일등공신 정

보화 1세대들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젊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계층이 되어 산업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노년층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시혜집단으로 인식되어 베푸는 집단으로 분류된 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할것인

지 함께 고민해야한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전체 24%며 그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50%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혜집단으로 분류된 노

년층은 사회의 짐일 수밖에 없다.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퇴직연령을 앞당겨 그 자리에 청년들을 고용하지는 발상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년층은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주체이다. 80대 연령층이 정보화 1세대 주역들이며 70대가 정보화산업을 꽃 피운 주력군이다.

육체노동이 필수적이었던 산업화사회에서 구분짓던 연령층에 따른 생산성산정은 정보화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 호칭도 고쳐야한다.

장년층과 노년층 스스로 생산적인 그룹에 자신들을 올려놓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할것이며 정부는 이들을 시혜대상이 아닌 생산그룹으로 분류해서 이들에게 희망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나설 것을 가정의 달을 보내며 촉구한다. [국문]



집 없는 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66만호 건설



대학생들이 방값 걱정 없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일만호 공급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산간벽지라도 찾아갑니다.
삼척도계 탄광촌, 보령성주 폐광촌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50호 공급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노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사원 2,000여명 채용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행복을 지원합니다

저희 LH는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의 84%인 66만호를 시세의 30~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임대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고령자 취업을 위한 실버사원 고용 등으로
서민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LH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써야 건강하다



이광영

“자주 사용하는 기관(器官)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여 없어지게 된다.” 프랑스 동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라마르크가 1809년 발표한 이른바 용불용설(用不用說·Theory of Use and Disuse)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기계가 쓰지 않고 방치하면 녹이 슬

고 고장이 나 못쓰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3일만 사용하지 않고 고정시키면 관절이 굳는다. 골절을 입어 석고붕대(cast)를 하여 뼈가 굳을 때까지 고정시키면 캐스트한 부위의 근육은 위축되고 관절은 굳어버린다. 위축된 근육을 되살리고 고정된 관절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재활이 필요하다. 중병에 걸려 장기간 누워 지내는 사람의 경우 잘 먹어도 바짝 마르는 것은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질수록 움직여야 한다. 기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편히 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럴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하면 등과 허리, 어깨가 굽고 굳어져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변한다. 기력이 떨어져도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팔다리와 어깨 그리고 허리 운동을 하게 되면 기력도 회복되고 몸도 유연해진다. 걷기운동이 노년에 보약중 보약이란 것은 이런 이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기관과 달리 나이 들어도 운동을 통해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미를 유지할 수 있다. 근육운동을 하면 70대까지도 보디빌더(bodybuilder)와 같은 몸매를 자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써야한다는 당위성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몸이 굽르게 된다. 하

지만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걸음걸이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과거 인력(人力)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절엔 몸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노화가 빨랐다. 그러나 지금은 몸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몸을 바르게 세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걷게 되면 노화가 지연되고 몸도 젊은이와 같이 깨끗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용불용설은 육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뇌의 기능에도 적용된다. 뇌도 많이 쓰면 기능이 좋아지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인터넷이 노년의 뇌 건강에 특효약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인터넷 검색이 독서나 바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년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미국 UCLA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노년의 뇌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K]

“전립선암 이길 수 있다”

토요건강포럼, 6월엔 ‘영조의 삶’ 강의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매월 공동으로 열고 있는 ‘토요건강포럼’이 지난 12일 낮 2시부터 명동에 있는 ‘이운수비뇨기과’ 홀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온 전립선 전문의 조성완 박사는 ‘전립선암, 알면 이길 수 있다’란 강의에서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장기인데 이 전립선에 암세포가 생겨 혈관에 침범하거나, 혈액을 타고 장기와 뼈에 퍼지는 경우를 전립선암이라 하며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서구에 비해 낮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전립선암은 전립선 비대증과는 달라 초기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병의 진행이 느리고 치료가 비교적 쉽고, 생존기간이 다른 암에 비해 길기는하나 일단 암이 발견되면 이미



토요건강포럼서 강의하는 조성완 박사.

암세포가 너무 커져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립선암은 암세포가 커져 요도를 막게 되면 전립선비대증과 유사한 증상(소변줄기가 가늘어지며 소변을 보는 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뚝 끊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자각증상이 없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됐을 때 많이 발견되는데 암이 빠르게 전이되어 관절염이나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를 치료하기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전립선암에 걸린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립선암의

조동표 회우 별세

원로 체육기자 조동표 회우가 5월 31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스포츠 전문 언론인으로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체육



부장 논설위원과 KBS 해설위원 및 대한체육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IOC 트로피와 고려대 교우회 공로장을 받았다. [K]

장순재 회우 별세

장순재 회우가 5월 13일 지병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5세. 대한언론인회는 14일 오후 4시 30분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거행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흥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다수가 참석한 이날 이

병대 본회 부회장은 우인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 했다.

고인은 1937년 7월 25일 전주 출생



으로 전주고와 연세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견습 8기 (62년)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그 후 동아일보 방송뉴스부 기자, 사회문화부장 해외부장, KBS 보도 방송위원, 뉴스제작실 라디오

24시 부장, 해설위원, 춘천 보도국장, 상파울루 지국장, 공주방송국장, 사회교육방송 시사평론가로 활약했다. 저서 ‘시사논평집’을 남겼다. [K]

弔辭

고 장순재 선배 영전에

이병대(본회부회장)

장순재 선배님!

이렇게 훌연히 떠나시다니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얼마전 몸이 아프시다는 말씀은 전화를 통해 나눴지만 이렇게 가시다니 정말 믿어지질 않습니다. 선배님께서 명문 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뒤 1962년 서울신문 견습8기로 언론계에 투신하셨습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 방송 뉴스부 사회문화부장과 해외부장을 거쳐 KBS로 옮긴 뒤 해설위원과 상파울루 지국장 그리고 공주 방송국장 등 중요한 자리에서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승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와는 동아일보 재직시 만나 KBS에서도 따뜻한 정을 나누었지요. 제가 KBS 사회교육국장 당시 장선배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저의 초청으로 사회교육방송의 저녁 종합뉴스를 오랫동안 맡아 진행하면서 방송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보면 둘이 한번 만나자고 했건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 선배님은 ‘장 천재’라는 애칭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였지요. 지난 육칠십년 대 ‘포커’ 놀이가 마감시간이 끝나면 거의 대다수 기



장순재 회우 빈소에서 이병대 부회장이 조사를 읽고 있다.

자실에서 유행처럼 벌여 지던 때 장 선배님은 상대방 카드를 귀신처럼 잘 읽는다고 불어졌 애칭이었지요. 그러나 언제나 판이 끝날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있었죠. 왜냐하면 ‘위너’가 됐을 때 마음이 약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게임의 속성상 그렇게 되고 만 거지요. 장 선배님은 느끼기에 따라서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 실수가 없었습니다.

장 선배님.

언젠가는 모두 헤어져야 한다지만 이렇게 떠나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정도를 지키신 장 선배님은 분명 극락왕생 하실 겁니다. 장선배님! 이제 남은 일은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한 1남2녀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극락왕생 하소서. [K]

위험인자는 나이, 인종, 전립선암의 가족력, 지방섭취 등이 있는데 전립선암은 이중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인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50대 이상 남성은 매년 한번은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하며 가족 중에 전립선암에 걸

린 사람이 있다면 40대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월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요건강포럼’에는 임한순 역사해설가가 ‘영조의 삶과 장수’에 대해 강의한다. [K]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記

kt

세계가 인정한 kt 세계적 권위의 IT분야 어워드 연속수상

2012년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최고기술상 수상, GSMA
2011년 다우존스(DJSI) 통신분야 글로벌 수퍼섹터리더 수상, 다우존스 & SAM
2011년 IP&TV산업대상 1위, ITM



GLOBAL MOBILE
AWARDS 2012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는 GSMA 주관의 세계적인 IT 시상식으로, kt는 2012년 (프리미엄 와이파이 솔루션)으로 국내 통신사 유일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 부문 최고기술상 수상

DOW JONES
S&P
SUSTAINABILITY INDEXES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는 다우존스와 투자평가사 SAM이 전세계 글로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평가지수로, kt는 2011년 국내 통신사 최초 <유무선통합 통신분야>의 <글로벌수퍼섹터리더> 수상

IP&TV
INDUSTRY
AWARDS

IP&TV산업대상은 ITM이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산업대상으로, kt는 2011년 olleh tv로 <베스트 IP 케이블, 하이브리드방송 및 커넥티드 TV 서비스> 분야 1위 수상



「2012여수엑스포 주관통신사 KT」
「올레 내비와 함께 여수엑스포 가세요」

olleh

회우동정

가나다순

21세기 방송통신연구소 20주년 세미나



강용식(21세기방송통신연구소 이사장)회우=6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방송통신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시화집 '새벽에 만난 달' 출판기념회



민병문(전 헤럴드경제 주필) 회우=5월 14일 오후 6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 유니버시티 클럽 11층에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의 53년 우정의 시화집 '새벽에 만난 달' (온복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959년 서울상대 17기 동기생인 민 시인과 박 회장은 언론인과 기업인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 시화집을 통해 예술가로서 제대로 조우한 셈이다.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 창립



봉두완(전 한국일보 주미 특파원·동양방송 앵커) 회우=6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통일부장관 국회관계자 통일활동 전문가를 초청,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 창립 기념식을 갖고 '2012 통일비전'을 선포했다.

'세계 고아의 날' 제정 한·일추진위 참석



제재형(본회 고문) 회우=지난 5월23일 일본동경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세계고아의 날' 제정추진 한·일 공동추진위원회 결성대회 한국측 대표로 참석했다. 6·25한국전쟁때 3천명의 고아를 거두어 기른 한국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 기념 사업회'가 주관한 이 행사엔 김경래, 이익순 회우도 동참했다.

환경문화대상 심사위원장 위촉



천상기(전 세계일보 편집위원 실장·경기대 초빙교수)회우=(사)월드그린환경연합과 국제환경방송·환경부가 공동주관하

는 2012 제10회 대한민국 환경 문화 대상 10개 부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한편 5월 8일 배설(Ernest Bethell) 선생 서거 103주년을 맞아 배설선생의 '언론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된 2012 제2회 배설언론대상 5개 부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아웅산 테러 현장 생생하게 증언



최재욱 (전환경부 장관·아웅산 테러 생존자)회우=2012년 5월 15일자 중앙일보에 23년전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 최 회우는 북한 공작원이 미리 도착한 대머리인 이계철 미얀마 대사를 전두환 대통령으로 알고 폭탄을 터뜨린 것 같다고 증언했다.

금혼(결혼 50주년)기념 만찬



한기호 본회 상담역=5월 5일 오후 6시 서울 르레미에르 뷔페식당에서 가족 친지들과 금혼(결혼 50주년)기념 만찬. 한기호 상담역은 부인 강연심 여사와의 사이에 영완(우리은행 지점장) 영일(미디어 K & 이사) 2남을 두었다.

'불패 이순신의 전쟁' 출판기념회



황원갑(소설가)회우=5월 11일(금) 오후 6시 서울 영덕대계집(02-3210-1379)에서 '불패-이순신의 전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바로 잡습니다

대한언론 314호 (2012년 5월호) 18면 회우동정란 중 '한국방송기자클럽 이사' 제하 이철영 회우(사진)의 사진이 이철 회우의 사진으로 잘못 게재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김원재(金源載)

1930년 5월 16일생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110
전화 3217-3521 휴대전화 010-9755-1795
자유신문사기자(58), 시사통신사기자(70~80), 시사통신사정치부장(80~82)

'미디어 사진기자 박물관' 건립

고명진회우, 영월군 폐교 리모델링

고명진 회우(전 한국일보 사진부 부국장)가 영월군 한반도면 내 10여년 전 폐교된 신천초등학교 여촌분교를 리모델링해 미디어 사진기자 박물관을 건립했다. "깨끗한 공기였다 한반도지형 전망대, 별마로천문대, 동강 래프팅, 고씨동굴 등 관광지와 체험거리가 넘치는 영월에서 현대사와 기자들의 직업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취재완장을 들고있는 고명진 미디어 기자 박물관 관장.

입구에 '미디어기자박물관'간판이 걸렸지만 사진 기자로 살았던 탓에 4개의 교실로 꾸민 박물관엔 기자들이 사용하던 타자기, 전화기, 녹음기, 카메라 등 전시품이 총 2,400여점에 이른다 특히 대통령 행사와 올림픽 등 주요 행사장 출입증과 취재 허가증에 해당하는 취재완장만 600여개에 이른다. 기자생활 전인 60~70년대의 완장은 수

많은 선배 기자들이 기증한 것들이다. 고명진 회우는 한국일보 사진부 기자 출신으로, 1987년 6·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 낸 시위 중 하나인 부산 문현로터리 평화대행진 현장에서 상의를 벗은 한 청년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 달리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 1999년 AP 선정 '20세기 세계 100대 사진'에 선정되기도 했다. [4]

본회 기우회, 26일 2분기 바둑모임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2분기 바둑모임을 6월26일(화) 오후2시 종로3가 바둑세계기원에서 갖습니다. 초여름의 더위와 무료함을 묘수와 깜짝수로 날려 보내십시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락처·길윤석총무 (010-2880-67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결혼 ◀

심의표(전 KBS해설위원)회우= 6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GS 타워 1층 아모리스 웨딩홀에서 장남 결혼
양희부(한국케이블TV협회장)회우= 6월 10일(일) 오후 6시 더 라움(강남구 역삼동)에서 차남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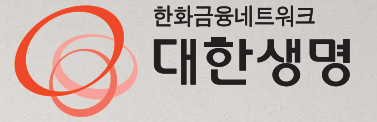
▶ 주소·전화번호 변경 ◀

맹태균(전경향신문편집위원)회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46번지 길 21 지석마을 더 루벤스 203동 1302호
이형균(전 경향신문 이사 편집국장)본회 편집고문= 010-5235-4414
이용화(전 동아일보 교열부차장)회우=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석현 1리 8-1
전화 031-959-6194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김광섭(12) 신동식(12)
김원재- 엄종석(10)
(53만원 입회비 이정윤-
및12년도연회비) (13,14,15,16)
김호곤(12) 장두원-
김후란- (12,13,14)
(본명 김형덕 전남석(12)
8,9,10,11,12) 최재욱(10,11,12)
노상국(9,10,11) 한건주(09)
박범진(13)



♪♪
콧콧 찢리는 인생들 Listen!

야구 관두면 뭐하고 살까 아내의 말에 **콧콧**
어째 공이 예전과 다르단 감독의 말에 **콧콧**
멀쩡하던 허리는 비만 오면 **콧콧**

대충대충 인생 살게?
콧콧 짚어 인생설계!



콧콧 짚어주는 인생설계
콧콧 Life 하세요!



뿌리 깊은 새싹이 되겠습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새싹처럼,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랩, 코바코.
31년 노하우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